

# 《論語》《孟子》 중의 'PXP' 문형

邊滢雨\*

---

## ◁ 목 차 ▷

- I. 서언
  - II. 《論語》《孟子》 중의 'P無P' 문형
    - 1. 《論語》 중의 'P無P' 문형
    - 2. 《論語》 중의 'P而無P' 문형
    - 3. 《孟子》 중의 'P無P' 문형
    - 4. 《孟子》 중의 'P而無P' 문형
  - III. 《論語》《孟子》 중의 'P必P' 문형
    - 1. 《論語》 중의 'P必P' 문형
    - 2. 《孟子》 중의 'P必P' 문형
  - IV. 결언
- 

## I. 서언

본고는 기존에 《論語》의 '傳不習乎' 문장과 관련한 역대 학자들의 다양한 해석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분석을 통하여 'P不P'(P: predicate의 약칭으로 술어의 의미) 문형의 일종으로 先秦시기 당시의 언어적 습관임을 밝힌 적이 있으나<sup>1)</sup>, P와 P사이에 쓰이는 단어가 '不'뿐만 아니라 '無'와 '必'도 유사한 용법이 있음을 발견하고, '不', '無', '必'를 X로 나타내어 'PXP'라는 문형을 설정하여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많은 번역서를 참고한 결과 해석상에 차이가 많았으며, 이에 대해서는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규칙성에 관한 의견만 개진하고자 한다.

---

\*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1) 拙稿(2004), 《《論語》《孟子》 중의 'P不P' 문형》, 中國文學研究 第28輯.

## II. 《論語》《孟子》 중의 'P無P' 문형

(1)의 문장에서 '思無邪'에 대한 번역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하지만, 문법적인 측면에서 '思'는 어떤 문장성분일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 (1) 《詩》三百, 一言以蔽之, 曰: “思無邪”. 《論語2·2》  
(詩 3백편은 한 마디로 개괄한다면 생각함에 邪惡함이 없다.)

위에 쓰인 한 문장만으로 '思'의 문장성분을 파악하기에는 힘들다. 어떤 규칙성이 있는가를 '無'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본 결과 'P無P'문형처럼 술어와 '無'를 바로 연이어 쓰거나 어떤 때는 '無'앞에 접속사'而'를 쓴 'P而無P'문형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 1. 《論語》 중의 'P無P' 문형

《論語》에서의 다음과 같은 문장은 형태적으로 'P無P'문형처럼 보이지만 '無道'는 동목구조가 轉指化되어 殺의 목적어역할을 하는 것으로 'P無P'문형에서 제외시켰다.

- (2) “如殺無道, 以就有道, 何如?” 《論語12·19》  
(“無道한 자들을 죽여서 올바른 길을 이룩하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論語》에서의 'P無P'문형이 나타난 것은 모두 9개였다. 그 중 4개의 예는 preP (앞의 P를 preP로 약칭함)가 모두 V(동사)만 나타난 경우이다.

- (3) 君子食無求飽, 居無求安. 《論語1·14》  
(君子는 식사하는 데는 배부르기를 바라지 않고, 거처하는 데는 편안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 (4) 《詩》三百, 一言以蔽之, 曰: “思無邪”. 《論語2·2》  
(詩 3백편은 한 마디로 개괄한다면 생각함에 邪惡함이 없다.)
- (5) 居之無倦, 行之以忠. 《論語12·14》  
(가만히 있을 적에는 게을리 하지 말고, 실지로 행동을 할 적에는 충성스

럽게 한다.)

P無P에서 preP의 품사는 모두 동사만 쓰였으며, (5)에서 '之'는 음절수를 맞추기 위한 수단으로 '之'를 쓴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3)(4)의 preP에 쓰인 V(동사)에 상당한 것으로 이해했다.

다음의 예문에서 쓰인 예는 비록 'P無P'문형이지만, preP의 성분이 'P而無P'문형에서 나타날 것 같은 형태의 것이 있었다.

- (6) 奪伯氏駢邑三百，飯疏食，沒齒無怨言。《論語14·9》  
(그가 伯氏의 駢邑300호를 빼앗아 거친 음식을 먹기에까지 만들었으나 伯氏는 평생토록 원망하는 말이 없었다.)
- (7) 蓋均無貧，和無寡，安無傾。《論語16·1》  
(대체로 수입이 고르면 가난함이 없을 것이고, 和平하면 백성이 적을 일이 없을 것이고, 안정하면 나라가 기울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 (8) 不仕無義。《論語18·7》  
(벼슬을 살지 않는다면 의롭지 않은 일입니다.)

예문 (6)(7)(8)은 preP가 '동목구조', '형용사', '동사의 부정'형태로 나타났으며, 의미관계는 (6)은 양보관계, (7)(8)은 가정관계를 이루고 있다. 특히 설명해야 할 부분은 (6)의 동목구조는 일반적인 동사와 목적어가 지배관계에 있는 것과는 다른 관용적 용법이다. '沒'는 성어 '沒齒難忘'의 쓰임처럼 특이한 구조를 갖는 동사이다. 게다가 preP가 형용사일 때는 일률적으로 'P而無P'형식을 갖지만, (7)의 예는 예외적으로 'P無P'형식을 갖는다. 'P無P'형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아마도 세 가지의 같은 형식이 대구를 이루는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 2. 《論語》 중의 'P而無P'문형

《論語》에서 'P無P'에서 '無'앞에 접속사'而'를 추가한 'P而無P'문형은 총 20개가 있다. 'P而無P'에서 preP에 해당하는 부분은 'P無P'와는 달리 단순하게 동사만 오는 것이 아니라 '주어+동사', '동사+목적어', '형용사', '부사어+동사' 등이 오게 되

는 특징이 있다.

- (9) 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論語2·3》 [주어+동사]  
(法制로 이끌고 刑罰로 다스리면 국민들은 형벌은 모면하나 수치심이 없게 된다.)
- (10) 願車馬衣輕裘, 與朋友共, 敝之而無憾. 《論語5·26》 [동사+목적어]  
(수레와 말을 타게 되고, 가벼운 가죽 옷을 입게 되어서 벗들과 그러한 財物을 같이 쓰다가 헐어져 버려도 섭섭해 함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 (11) 恭而無禮則勞, 愼而無禮則蕙, 勇而無禮則亂, 直而無禮則絞. 《論語8·2》 [형용사]  
(공손하면서 禮가 없으면 수고스럽고, 신중하면서 禮가 없으면 두려워지고, 용맹스러우면서 禮가 없으면 난동을 일으키고, 곧으면서 禮가 없으면 박절하여진다.)
- (12) 大哉孔子! 博學而無所成名. 《論語9·2》 [부사어+동사]  
(위대하구나, 孔子여! 博學하시면서도 그것으로 명성을 이루신 바 없으시니.)
- (13) 暴虎馮河, 死而無悔者, 吾不與也. 《論語7·11》 [동사]  
(맨손으로 범에게 달려들고 黃河를 맨발로 건너며 죽어도 뉘우침이 없는 사람과는 나는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13)의 예는 preP가 동사1음절로 되어 있어 1절에서 살펴본 규칙에 따르면, 'P無P'문형으로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동사'死'의 특징은 비의지성 [nonvolitional]의 의미자질을 갖기 때문에 '而'를 쓴 것으로 보인다.

preP성분에 대한 통계를 내면 다음 표와 같다.

'P而無P' preP성분	개수
주어+동사	1
동사+목적어	1
형용사(1음절)	12
부사어+동사	1
동사(비의지성)	1
합계	16

## 3. 《孟子》 중의 'P無P'문형

《孟子》에서 (14)(15)와 같은 문장은 'P無P'처럼 보이지만, 'P無P'문형에서 제외시켰다.

- (14) 夫志至焉, 氣次焉, 故曰, '持其志, 無暴其氣.' 《孟子3·2》  
 (志가 나타나면 氣가 그 뒤를 따라서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志를 올바르게 지키고 자기의 氣를 자극함이 없도록 하라'고 말하는 것일세.)
- (15) 其爲氣也, 配義與道, 無是, 餒也. 《孟子3·2》  
 (그것이 氣가 되는 것은 正義와 正道에 병행하기 때문이며, 그것이 없으면 허탈이 오네.)

(14)와 같은 문장은 형태적으로 'P無P'문형처럼 보이지만 '無'는 금지를 나타내는 용법으로 쓰여 병렬복문을 이루는 형태이다. (15)는 '無是'와 '餒也.'가 함께 쓰여 가정문을 이루면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P無P'구조를 띠다고 볼 수 없다.

《孟子》에서의 'P無P'문형이 나타난 것은 모두 7개였다. preP가 동사로만 나타난 경우는 예문(16)의 1개가 있다.

- (16) 孟子曰, "言無實, 不祥. 不祥之實, 蔽賢者當之." 《孟子8·17》  
 (孟子께서 말씀하시었다. "말하는데 실질이 없으면 상서롭지 못하다. 상서롭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는 賢良한 것을 덮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막는다.")

preP가 '동사+목적어'구조로 된 예는 다음의 5개가 있었다.

- (17) 從流下而忘反謂之流, 從流上而忘反謂之連, 從獸無厭謂之荒, 樂酒無厭謂之亡. 《孟子2·4》  
 (흐름에 따라 배타고 내려가며 돌아가기를 잊는 것을 流라고 하고, 흐름에 따라 배타고 올라가면서 돌아가기를 잊는 것을 連이라고 하고, 짐승을 따라 다니며 싫증나는 줄을 모르는 것을 荒이라고 하며, 술을 즐기며 싫증나는 줄을 모르는 것을 亡이라고 합니다.)
- (18) 孟子曰, "禹惡旨酒而好善言. 湯執中, 立賢無方." 《孟子8·20》  
 (孟子께서 말씀하시었다. "禹임금은 맛있는 술을 싫어하고 좋은 말을 좋아하였다. 湯王은 中庸을 지키고 현량한 人材를 벼슬자리에 서게 하는

데는 그 출처를 따지지 않았다.”)

- (19) 蚤起, 施從良人之所之, 徧國中無與立談者. 《孟子8·33》

(일찌감치 일어나 비스듬히 남편 가는 곳을 따라갔는데, 온 나라를 다 가도 같이 서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었다.)

- (20) 曰: “非之無舉也, 刺之無刺也, 同乎流俗, 合乎污世, 居之似忠信, 行之似廉潔, 衆皆悅之, 自以爲是, 而不可與入堯舜之道, 故曰‘德之賊’也.” 《孟子14·37》

(“그를 비난하려 들면 이것이라고 들 게 없고, 그를 풍자하려 들면 풍자할 거리가 없다. 流俗과 同調하고 더러운 세상과 합류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忠直하고 신용 있는 것 같고, 행동하는 것은 清廉潔白한 것 같아서 여러 사람들이 다 그를 좋아하고 자기도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데, 그러한 사람과는 堯舜금과 舜금의 道로는 함께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德을 해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論語》에서 preP가 ‘동사+목적어’구조로 된 경우는 ‘P而無P’문형으로 나타난데 반해, 《孟子》에서는 5개의 예가 모두 ‘P無P’문형으로 나타난 것은 특이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preP가 ‘명사술어문의 부정’구조로 된 예는 다음의 2개가 있었다. 명사술어문이 ‘P無P’문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은 앞에 부정을 나타내는 ‘非’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21) “非仁無爲也, 非禮無行也. 如有一朝之患, 則君子不患矣.” 《孟子8·28》  
 (“인자한 일이 아니면 하지 않고, 禮가 아니면 행하지 않는다. 하루아침에 겪는 걱정 같은 것이라면 君子는 걱정하지 않는다.”)

《孟子》 중의 ‘P無P’문형에서 preP성분에 대한 통계를 내면 다음 표와 같다.

‘P無P’ preP성분	개수
동사	1
동사+목적어	5
명사술어문 부정	1
합계	7

## 4. 《孟子》 중의 'P而無P'문형

《孟子》에서 'P而無P'에서 '無'앞에 접속사'而'를 추가한 'P而無P'문형은 총 11개가 있다. 'P而無P'에서 preP에 해당하는 부분은 'P無P'와는 달리 단순히 '동사' 혹은 '동사+목적어'만 오는 것이 아니라 '형용사', '명사술어문', '부사어+동사' 등이 오게되는 특징이 있다.

preP가 형용사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 (22) 老而無妻曰鰥, 老而無夫曰寡, 老而無子曰獨, 幼而無父曰孤. 《孟子20·5》  
(늙고 아내 없는 것을 홀아비라고 하고, 늙고 남편없는 것을 과부라고 하고, 늙고 자식 없는 것을 외로운 사람이라고 하고, 어리고 아버 없는 것을 孤兒라고 합니다.)
- (23) 恭敬而無實, 君子不可虛拘. 《孟子13·37》  
(공경하면서 그 眞實性이 없으면 君子를 헛되이 머물러 있게 할 수는 없다.)

(22)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而의 용법을 설명할 때 '부사어+而'로 설명하지만, 본고에서의 초점은 'P而無P'문형에서 preP의 품사 혹은 통사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있으며, 《論語》의 'P而無P'문형에서 preP의 성분이 형용사일 때 항상 'P而無P'구조를 갖는 것과 상당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3)의 경우는 형용사가 연이어 쓰인 경우이다.

다음은 preP가 명사술어문인 경우이다.

- (24) 此四者, 天下之窮民而無告者. 《孟子2·5》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天下의 궁핍한 백성들로서 호소할 데 없는 사람들입니다.)

(24)에서 '天下之窮民'이 명사술어문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우선 '此四者'와 '天下之窮民'이 판단문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다시 '天下之窮民'에 대해서 재지칭하는 형태표지없이 '而'를 써서 문장을 이어나가는 형태로 보기 때문이다.

다음은 preP가 '부사어+동사'인 경우이다.

- (25) 人之有道也, 飽食·煖衣·逸居而無教, 則近於禽獸. 《孟子5·4》  
 (사람이 사는 방도는,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고 편안하게 살면서 교육이 없으면 새와 짐승에 가까워진다.)
- (26) ‘湯始征, 自葛載,’ 十一征而無敵於天下. 《孟子6·5》  
 (탕임금은 최초의 정벌을葛나라부터 시작하여 11차의 정벌을 감행하였는데 天下에 그를 對敵할 상대가 없었다.)

다음은 preP가 ‘부사어+동사’인 경우이다.

- (27) “爲其事而無其功者, 髡未嘗觀之也. 是故無賢者也, 有則髡必識之.” 《孟子12·6》  
 (“할 일을 하는데 그 효과가 나지 않은 예를 저는 여태까지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량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있었다면 제가 반드시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孟子》 중의 ‘P而無P’문형에서 preP성분에 대한 통계를 내면 다음 표와 같다.

‘P而無P’ preP성분	개수
형용사	5
명사술어문	1
명사술어문 부정	1
부사어+동사	4
동사+목적어	1
합계	11

### Ⅲ. 《論語》《孟子》 중의 ‘P必P’문형

《論語》《孟子》에는 ‘傳不習乎’나 ‘思無邪’처럼 ‘必’ 앞에 동사 하나만 쓰여서 ‘P必P’ 긴축복문을 이루는 경우가 있다.

- (28) 父母在, 不遠遊, 遊必有方. 《論語4·19》



- (부모가 생존해 있으면 멀리 나가지 않고 나가게 되면 반드시 간다고 한 곳에 가 있어야 한다.)
- (29) 齊必有明衣, 布./齊必變食, 居必遷坐. 《論語10·7》  
(齋戒하면 반드시 목욕옷을 가지셨는데, 葛布로 만드셨다. 齋戒하면 반드시 음식은 평소의 것과는 달리 하시고, 앉으시는 자리도 바꾸셨다.)
- (30) 夫人不言, 言必有中. 《論語11·14》  
(그 사람은 말을 하지 않지만, 말을 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의 核心을 찌른다.)
- (31) 言必信, 行必果, 硜硜然小人哉. 《論語13·20》  
(말하는데 반드시 신용이 있고, 행하는데 반드시 과감하게 하는 것은 완고한 小人이기는 하다.)
- (32) “以天下之所順, 攻親戚之所畔, 故君子有不戰, 戰必勝矣.” 《孟子4·1》  
(“은 天下가 순종하는 힘을 가지고 친척에게까지 배반당하는 사람을 공격하기 때문에 君子는 전쟁을 하지 않는 수는 있어도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 (33) 孟子道性善, 言必稱堯舜. 《孟子5·1》  
(孟子께서는 인간의 本性이 善함을 일러주시고 말을 하면 堯임금과 舜임금을 들어서 말씀하셨다.)
- (34) ‘我能爲君約與國, 戰必克.’ 《孟子12·9》  
(‘나는 임금을 위해 友好國과 盟約을 맺고,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예문(28)~(34)의 예에서 《論語》에 6개, 《孟子》에 3개의 예가 'P必P'의 긴축복문을 이루면서 preP가 동사하나만 쓰인 예를 든 것이다.

하지만, '必'이 쓰인 문장은 'P無P'처럼 preP의 성분에 따라 '而'를 써서 'P而無P' 문형을 만들지 않으며, '必'은 중간에서 의미관계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해서 《左傳》에서 '必'이 나타난 문장을 모두 분석하여 복문의 종류와 '必'의 의미자질을 분석한 바 있다.<sup>2)</sup> 그 분석방법을 바탕으로 《論語》와 《孟子》에 나타난 긴축복문인 'P必P'문형에서의 특징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左傳》의 '必'을 분석할 때 우선 단문에 쓰일 때의 '必'과 복문에서 쓰일 때의 '必'을 구분하여 설명하였고, 복문에서 쓰일 때의 '必'은 다시 앞구절에서 쓰이는 pre必

2) 拙稿(2008), 《左傳》에 나타난 “必”의 용법 및 관련문장의 특성고찰, 中國學報57輯.

과 뒷구절에서 쓰이는 post必을 구분하였으나 본고에서의 분석대상은 'P必P'문형이기 때문에 post必의 분석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 1. 《論語》 중의 'P必P'문형

《論語》에는 45개의 'P必P'문형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복문의 유형별로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 1) 가정문을 이루는 경우

가정문을 이루는 경우는 37개의 문장이 있다.

- (35) 父母在, 不遠遊, 遊必有方. 《論語4·19》 [+당위성]  
(부모가 생존해 있으면 멀리 나가지 않고 나가게 되면 반드시 간다고 한 곳에 가 있어야 한다.)
- (36) 工欲善其事, 必先利其器. 《論語15·10》 [+당위성]  
(工人이 그 일을 잘 하려고 하면 먼저 그 연장을 날카롭게 해야 한다.)
- (37) 齊必有明衣, 布./齊必變食, 居必遷坐. 《論語10·7》 [+경상성]  
(齋戒하면 반드시 목욕옷을 가지셨는데, 葛布로 만드셨다. 齋戒하면 반드시 음식은 평소의 것과는 달리 하시고, 앉으시는 자리도 바꾸셨다.)
- (38) 升車, 必正立, 執綏. 《論語10·26》 [+경상성]<sup>3)</sup>  
(수레에 오르시면 반드시 그 앞에 똑바로 서서서 손잡이를 잡으셨다.)
- (39) 三人行, 必有我師焉. 《論語7·22》 [+추측]  
(세 사람이 같이 길을 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 (40) 人無遠慮, 必有近憂. 《論語15·12》 [+추측]  
(사람이 먼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우환이 생긴다.)

가정문을 이룰 때의 '必'의 의미자질은 [+당위성]: 4개, [+경상성]: 27개, [+추측]: 6개의 예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가정문이라고 하더라도 형태표지가 없었다. 다만, 아래의 예는 좀 예외적으로 형태표지가 나타났다.

3) 經常性은 어떤 동작이나 행위가 항상 이루어짐에 대한 표현으로 이 용어를 썼다.

- (41) 如有復我者, 則吾必在汶上矣.《論語6·9》  
 (만약에 또 나를 부르러 오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반드시 汶水 가에 가 있게 될 것입니다.)
- (42) 丘也幸. 苟有過, 人必知之.《論語7·31》  
 (나는 다행하다. 過誤가 있으면 남이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가정문을 이루는데 일반적으로 형태표지가 없이 'P必P'문형으로 나타내고 있지만, (41)의 예는 '如'와 '則'의 형태표지가, (42)의 예는 '苟'의 형태표지가 나타났으며, '必'의 앞에 '吾'와 '人'의 주어가 쓰였다. 이는 엄격히 따지면 'P必P'문형의 기준은 형태표지 없이 이루어지거나 '必'앞에 주어가 쓰이지 않는다. 이를 'P必P'문형의 확장형태로 볼 수도 있지만, 주어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 preP와 '必'과의 긴밀성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제외시켰다.

가정문을 이룰 때 의미자질 분포의 합계를 보면 표와 같다.

의미자질	총수
경상성	27
당위성	4
추측	4
합계	35

2) 양보문을 이루는 경우

- (43) 君子無終食之間違仁, 造次必於是, 顛沛必於是.《論語4·5》 [+경상성]  
 (君子는 식사를 끝내는 동안에도 仁慈함을 어기는 일이 없는 것으로, 황급할 때에도 반드시 그 것을 유지하고 곤경에 처해서도 반드시 그것을 유지한다.)
- (44) 十室之邑, 必有忠信如丘者焉, 不如丘之好學也.《論語5·28》 [+추측]  
 (10호 정도의 작은 마을에도 반드시 충성되고 신용 있기가 나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나, 내가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만은 못할 것이다.)
- (45) 雖蔬食、菜羹, 必祭, 必齊如也.《論語10·11》 [+경상성]  
 (거친 밥, 채소만의 국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제사를 하였고 그 태도가 반

드시 경건하셨다.)

(46) 雖小道，必有可觀者焉，致遠恐泥，是以君子不爲也。《論語19·4》〔+추측〕

(小道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볼 만한 것이 있을 것이나, 그것을 멀리까지 따라간다면 짐작할까 무서워서 君子는 그런 것에 종사하지 않는 것이다.)

(43)의 예는 preP가 형용사로 쓰였으며, 형태표지 없이 양보문으로 쓰인 예이다. (44)는 preP이 명사술어문으로 쓰여 역시 형태표지 없이 양보문으로 쓰였다. (45)(46)은 모두 명사술어문이지만 양보를 나타내는 형태표지'雖'를 써서 (44)와 대조적이다. (45)(46)은 비록 형태표지'雖'를 썼지만, '必'앞에 주어가 등장하지 않아서 'P必P'문형으로 간주하였다.

양보문을 이룰 때 의미자질 분포의 합계를 보면 표와 같다.

의미자질	총수
경상성	3
추측	2
합계	5

### 3) 가정과 양보의 복합복문을 이루는 경우

(47) 子見齊衰者、冕衣裳者與瞽者，見之，雖少，必作。《論語9·10》〔+경상성〕

(선생님께서 喪服을 입은 사람과 冕服을 입은 사람과 눈먼 사람을 만나시는 데 있어서는, 만나시게 되면 이들이 年少하더라도 반드시 일어나시고, 이들을 지나가시게 되면 반드시 걸음을 빨리 옮기신다.)

(48) 見齊衰者，雖狎，必變。見冕者與瞽者，雖褻，必以貌。《論語10·25》〔+경상성〕

(喪服을 입은 사람을 만나면 비록 친밀하신 사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변색하시고 대하셨다. 冕服을 입은 사람과 앞 못보는 사람을 만나시면 비록 자주 만나시는 처지라 할지라도 반드시 예모를 갖추시고 대하셨다.)

(49) 知及之，仁不能守之，雖得之，必失之。《論語15·33》〔+추측〕

(智力이 그것에 미쳐도 인자함이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비록 그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잃게 될 것이다.)

(47)(48)(49)의 예는 모두 가정문과 양보문이 복합된 복문을 이루고 있으며, 가정문에 대한 형태표지는 없지만, 양보문에는 일률적으로 '雖'를 쓰고 있다. 가정과 양보의 복합복문을 이룰 때 의미자질 분포의 합계를 보면 표와 같다.

의미자질	총수
경상성	3
추측	1
합계	5

## 2. 《孟子》 중의 'P必P'문형

《孟子》에는 48개의 'P必P'문형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1) 가정문을 이루는 경우

가정문을 이루는 경우는 44개의 문장이 있다.

- (49) 孟子道性善，言必稱堯舜。《孟子5·1》 [+경상성]  
(孟子께서는 인간의 본성이 오향함을 알려주시고 말을 하면 堯임금과 舜임금을 들어서 말씀하셨다.)
- (50) 故曰，爲高必因丘陵，爲下必因川澤。《孟子7·1》 [+당위성]  
(그래서 높아지려면 반드시 언덕으로 올라가야 하고, 낮아지려면 반드시 개울과 못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 (51) 夫尹公之他，端人也，其取友必端矣。'庾公之斯至，曰，'夫子何爲不執弓?'《孟子8·24》 [+추측]  
(尹公之他是 단정한 사람이다. 그가 取擇한 친구도 반드시 단정할 것이다.)

가정문을 이룰 때의 ‘必’의 의미자질은 [+경상성]: 23개, [+당위성]: 8개, [+추측]: 13개의 예가 있었다. 《孟子》에서는 《孟子》의 예외는 달리 형태표지가 있는 경우가 6개 있었다.

- (52) 孟子見齊宣王，曰，“爲巨室，則必使工師求大木。”《孟子2·9》 [+당위성]  
 (孟子께서 齊宣王을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큰 궁전을 지으시려면 반드시 建築師를 시켜서 큰 나무를 구해 오게 해야 합니다.”)
- (53) 魯平公將出，嬖人臧倉者請曰，“他日君出，則必命有司所之。”《孟子2·16》 [+경상성]  
 (魯平公이 밖에 나가려고 하자 臧倉이라고 하는 愛妾이 “다른 날 임금님께서 나가실 적이면 반드시 有司에게 가시는 곳을 말씀하셨습니다.”)
- (54) 曰：“今有受人之牛羊而爲之牧之者，則必爲之求牧與芻矣。”《孟子4·4》 [+당위성]  
 (“이제 남의 소와 양을 받아서 그것들을 길러주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소와 양을 위해 목장과 풀을 찾아야 합니다.”)
- (55) 王如改諸，則必反予。《孟子4·12》 [+추측]  
 (왕이 만약에 마음을 고친다면 반드시 나를 되돌아가게 하였을 것이다.)
- (56) 凶年，糞其田而不足，則必取盈焉。《孟子5·3》 [+경상성]  
 (凶년에는 소출이 밭에다 거름을 할 비용에도 모자라는데 그럴 때는 반드시 정한 액수에 채워서 받아갑니다.)
- (57) 齊人有一妻一妾而處室者，其良人出，則必饜酒肉而後反。《孟子8·33》 [+경상성]  
 (齊나라 사람으로 아내 하나와妾 하나를 데리고 사는 者가 있었다. 남편이 나가면 반드시 술과 고기를 물리도록 먹고 나서 돌아오곤 하였다.)

(52)~(57)까지의 예문에는 가정의 의미를 보태주는 역할을 하는 형태표지 ‘則’이 있으며, (55)의 경우는 ‘則’ 이외에 접속사 ‘如’까지 나타났다. 위 예문의 6개 문장은 모두 본고에서 말하고자 하는 ‘P必P’문형의 변형형태 혹은 확장형태로 파악하여 ‘P必P’문형에 포함시켰다.

가정문을 이룰 때 의미자질의 분포의 합계를 보면 표와 같다.

의미자질	총수
경상성	23
당위성	8
추측	13
합계	44

## 2) 인과문을 이루는 경우

인과문을 이루는 경우는 (58)의 예 1개가 있었다.

(58) 觀水有術，必觀其瀾. 《孟子13·24》 [+당위성]

(물 보는 데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물을 보려면 반드시 그 波瀾을 보아야 한다.)

(58)의 예는 '必'의 앞에 '觀水'가 생략된 형태로 보았다.

즉, 생략된 부분을 넣어 문장을 만든다면 '觀水有術, (觀水)必觀其瀾.'가 될 수 있는데 앞뒤 문장에 동사'觀'이 존재하기 때문에 '必'앞에서 '觀水'를 생략한 형태로 간주하였다.

## 3) 복합복문을 이루는 경우

가정문과 양보문이 함께 등장하는 경우는 (58)(59)의 2개의 예가 있었다.

(58) 今有璞玉於此，雖萬鎰，必使玉人彫琢之. 《孟子2·9》 [+추측]

(이제 여기에 璞玉(박옥)이 있다면 그것이 萬鎰(만일)이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玉 다루는 사람을 시켜서 다듬게 하실 것입니다.)

(59) 及是時，明其政刑，雖大國，必畏之矣. 《孟子3·4》 [+추측]

(그렇게 된 때에 이르러서 그 나라의 政教와 형벌을 밝힌다면 큰 나라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나라를 두려워할 것이다.)

(58)(59)의 예는 가정문에서는 형태표지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명사술어문으로

양보문을 이루는 경우 ‘萬鎰’와 ‘大國’의 앞에 똑같이 접속사‘雖’를 쓴 것으로 볼 때 《論語》의 (45)(46)예문처럼 명사술어문일 때 ‘雖’를 쓰게 된다는 규칙성은 일반적임을 알 수 있다.

인과문과 가정문이 함께 등장하는 경우는 (60)의 1개의 예가 있었다.

- (60) 以力假仁者霸，霸必有大國，以德行仁者王，王不待大——湯以七十里，文王以百里。《孟子3·3》〔+당위성〕  
(武力으로 仁政을 대신하는 것은 霸道이기 때문에 霸를 칭하려면 반드시 큰 나라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 IV. 결론

《論語》《孟子》에서 ‘P不P’와 같은 형태의 구조를 ‘不’외에도 ‘無’와 ‘必’에서도 발견되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1. 《論語》‘P無P’문형에서 preP는 동사가 기본이며, 약간의 변형형태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2. 《論語》‘P而無P’문형에서 preP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어+동사’, ‘동사+목적어’, ‘형용사’, ‘부사어+동사’ 등이 오는 규칙을 알 수 있다.
3. 《孟子》‘P無P’문형에서는 preP가 동사 하나만 쓰인 경우가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동사+목적어’형태가 왔으며, 이와 같은 결과에서 《論語》와 《孟子》의 ‘P無P’문형의 서로 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4. 《孟子》‘P而無P’문형에서 preP는 ‘형용사’, ‘명사술어문’, ‘부사어+동사’의 구조가 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論語》‘P而無P’문형과의 공통된 부분은 preP가 ‘형용사’, ‘부사어+동사’일 때는 일률적으로 ‘P而無P’문형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論語》와 《孟子》의 ‘P必P’문형에서 preP가 동사하나만 쓰인 경우는 93개의 ‘P必P’문형에서 9개를 차지하여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는 않았지만, ‘P必P’문형이 preP가 동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구 혹은 문장의 형태를 갖추면서 확장형태로 쓰이기도 하면서, 나름대로의 특징을 지녀 가정, 양보, 인과 등의 의미관계를 표시하는 형태표지가 몇 개의 예를 제외하고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임을 알 수



있다.

본고는 언어자료를 《論語》와 《孟子》에만 국한시켜 'P無P'와 'P必P' 문형을 살펴본 결과이지만, 상당한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향후 《論語》와 《孟子》뿐만 아니라 先秦시기의 언어현상과 이후의 변화과정을 살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參考文獻】

〈서적류〉

- 楊伯峻, 《孟子譯注》, 中華書局(北京), 1990.  
程樹德, 《論語集釋》, 中華書局(北京), 1990.  
楊伯峻, 《論語譯注》, 中華書局(北京), 1992.

〈논문류〉

- 李運富, 〈《論語》裏的“必也, P”句式〉, 《中國語文》第3期, 1987.  
崔立斌, 〈《孟子》的名詞·動詞·形容詞研究〉(北京大學博士學位論文(未刊)), 1996.  
拙稿, 〈《論語》名詞·動詞研究〉(北京大學博士學位論文(未刊)), 1997.  
宋紹年, 〈古代漢語謂詞性成分的指稱化與名詞化〉, 《古漢語語法論集》, 語文出版社, 1998.  
袁毓林, 〈祈使句式和形容詞的類〉《袁毓林自選集》, 廣西師範大學出版社, 1999.  
拙稿, 〈《論語》에 나타난 몇 가지 副詞에 대한 고찰〉《中國語文論譯叢刊》12輯, 2004.  
拙稿, 〈《論語》《孟子》 중의 'P不P' 문형〉, 《中國文學研究》第28輯, 2004.  
拙稿, 〈《左傳》에 나타난 “必”의 용법 및 相關문장의 특성고찰〉, 《中國學報》57輯, 2008.

### 【中文提要】

《論語》、《孟子》裏發現除了像‘傳不習乎’的‘P不P’句型以外, ‘無’和‘必’也可

以構成‘PXP’結構，從中下了簡單的結論如下：

1. 《論語》‘P無P’句型的preP一般是由動詞充當，也有一些變形的結構。
  2. 《論語》‘P而無P’句型的preP一般是‘主語+動詞’，‘動詞+賓語’，‘形容詞’，‘狀語+動詞’。
  3. 《孟子》‘P無P’句型的preP為動詞的只有1例，一般是由‘動詞+賓語’充當。從中發現《論語》《孟子》構成‘P無P’句型的差異。
  4. 《孟子》‘P而無P’句型裏preP一般是‘形容詞’，‘名詞謂語’，‘狀語+動詞’，與《論語》相同之處為“preP是‘形容詞’、‘狀語+動詞’時，一律構成‘P而無P’句型”。
  5. 《論語》《孟子》裏的93個‘P必P’句子當中，preP為動詞的例子只有例，占不多的比例。但‘P必P’句型除了‘動詞’preP以外，各種各樣的詞句作preP，可以構成‘P必P’的擴展形式。
- 另外，‘P必P’句子構成假設、讓步、因果關係時，一般沒有出現形態標志。

### 【主題語】

《論語》，《孟子》，‘P不P’문형, ‘PXP’문형, ‘P無P’문형, ‘P而無P’문형, ‘P必P’문형  
《Confucious ana》, 《Mencious ana》, ‘P不P’sentence, ‘PXP’sentence, ‘P無P’sentence, ‘P而無P’sentence, ‘P必P’sentence

투고일: 2013. 1. 15 / 심사일: 2013. 1. 20~2. 5 / 게재확정일: 2013. 2. 10